

‘마한 문화·역사’ 함평 예덕리 고분군 사적 된다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1700년 전부터 조성...역사·학술적 가치 ↑

3~5세기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의 변천사를 집약하고 있는 ‘함평 예덕리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함평 월야면 예덕리 일원에 위치한 예덕리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예고는 예덕리 고분군이 1981년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전남도와 함평군,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시굴 조사와

1·2차 발굴 조사, 학술 연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성과다. 이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가치가 체계적으로 규명됐다.

예덕리 고분군은 3~5세기 마한의 대표적 고분군으로, 분구의 확장 과정과 매장시설 구성의 변화를 통해 마한 고분 문화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함평군 예덕리 고분군 모습. 사진제공=함평군

고분군은 영산강의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3세기부터 300여년에 걸쳐 조성된 총 14기의 고분이 주구를 공유하며 연결해 조성된 집단 묘역이다.

조사 결과 다장(多葬) 양상이 확인됐으며 매장시설 역시 목관(棺)묘 중심에서

옹관묘가 병존·확대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또한 분구가 수평 확장된 이후 수직 확장에 이어지는 단계적 축조 양상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분군 중앙부에서는 입주의례(立柱儀禮)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특이한 형태의 의례용 구덩이인 이형토경(異形土坑)이 확인돼, 마한 사회의 장례 의례와 정신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술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대형 고분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마한 소국의 성장 과정과 정치·사회 구조 형성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서 학술적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번 사적 지정 예고에 따른 지정 대상 면적은 총 54필지 7만2789㎡로, 문화유산 구역 12필지(1만4059㎡)와 문화유산보호 구역 42필지(5만8730㎡)를 포함한다.

예고는 국가유산청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에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함평 지역에는 △보물 1건 △천연 기념물 2건의 국가지정유산이 있으며, 예

덕리 고분군이 최종 지정될 경우 함평 최초의 국가 사적이 될 전망이다.

군은 사적 지정이 확정되면 예덕리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학술 연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해 함평을 대표하는 마한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가사적 지정 예고는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적의 보존과 연구를 통해 함평 마한 문화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제54회 강진청자축제 기간 트로트 콘서트 등 공연 프로그램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강진청자축제 27만명 방문...역대 최대 흥행

전년보다 54% 증가...반값여행 시너지로 지역경제 ‘활력’

지난 2일까지 10일간 강진군 대면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제54회 강진청자축제가 전국에서 관광객 27만명이 몰리며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썼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이번 축제는 청자와 미술,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진 체험형 축제로 운영되며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축제기간 동안 총 26만7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축제장과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했다. 지난해 17만여명 대비 무려

54% 이상 관광객이 증가했다. 개막과 동시에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주말과 공연 일정에 맞춰 가족 단위 관광객과 단체 방문객이 대거 찾으며 축제장의 열기를 이어나갔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피지컬 강진, 장차 패기 체험 등 게이미피케이션이 수시로 진행돼 다양하게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한 대비 쉼터를 다수 설치해 방문객이 축제를 즐기면서도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유채꽃밭

에서 펼쳐진 나비 날리기 퍼포먼스까지 더해지며, 지난해와는 또 다른 현장감과 계절감을 선사했다.

청자축제인 만큼 청자 본연의 가치와 전통을 되새기는 데에도 의미를 뒀다. 지역 도예 명장들은 강진 명물인 청자를 알리기 위해 체험프로그램, 전시 판매전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하며 축제의 중심을 지켰다. 이번 축제는 여러 민간요 업체가 참여해 강진 청자의 전통과 품격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의 또 다른 축이었던 공연 프로그램 역시 큰 관심을 받았다.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트로트 콘서트, 청자골 열린

음악회, 폐막 콘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져 축제장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청자판매액은 3억8300만원으로 전년 3억6600만원을 넘어섰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연계해 지역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됐다. 축제장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관광객이 방문하며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강진원 강진군은 “제54회 강진청자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의 성원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화순 만원임대주택 지원...100호 공급

(주)부영주택 업무협약...청년·신혼부부 대상

화순군은 최근 (주)부영주택과 2026년도 만원임대주택 신규 100호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원임대주택 사업은 군이 부영아파트를 입차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부영주택은 2022년 12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임대주택 300호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1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영주택은 만원 임대주택의 내부 보수와 현장 만원 처리 등에 적극 협조해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 결과 3년간 타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으로 전입했고, 입주 이후 자녀 21명을 출산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현재 공고를 통해 만원임대주택 1차분 23호를 공급 중이다. 이어 2차분 지원사업은 1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5월 2일 입주자 추첨을 거쳐, 7월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1차분 지원사업에 신청했지만 최종 당첨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2차분 지원사업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집의 목적은 소유가 아닌 거주에 있다’라는 이종근 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에 힘써 왔으며,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택 1차분 23호를 공급 중이다. 이어 2차분 지원사업은 1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5월 2일 입주자 추첨을 거쳐, 7월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1차분 지원사업에 신청했지만 최종 당첨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2차분 지원사업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집의 목적은 소유가 아닌 거주에 있다’라는 이종근 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에 힘써 왔으며,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나주 빛가람꿈자람센터 장난감도서관 정식 개관

522종 1582점 구비...전남 최대 규모 단일 시설

나주시가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빛가람꿈자람센터 내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을 정식 개관하며 맞춤형 육아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꿈자람센터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을 연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교구와 장난감 522종 1582점을 구비했다.

약 529㎡ 규모로 전남도 단일 시설 기준 최대 수준을 갖췄으며 회원제로 운영된다. 가정에서는 고가의 장난감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도 아이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육아지원센터는 정기적인 소독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이용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놀이체험실은 테마형 공간으로 구성해 토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및 창의성 발달을 돕도록 설계했다.

친환경 자재와 안전 설비를 적용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 이용 방법과 회원 가입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육아지원센터(061-339-2795, 061-339-2797)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 개관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나주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 전자소독증명시스템 도입 운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해남군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위생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남도 최초로 ‘전자소독증명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소독업소는 소독실시대장을 작성해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고, 보건소는 이를 수기대장으로 보관·관리하면서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번에 도입한 전자소독증명시스템은 소독업소가 온라인으로 소독 실시 내용을 등록하면 즉시 전산화돼 저장·관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독 이력의 누락을 방지하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이력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졌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담양, 담양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선 추진

광장 확장·교통체계 재정비...보행 안전 강화

담양군이 담양종합체육관 이용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도로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통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체육관 광장 사이를 통과하던 기존 진입도로로 인해 제기돼 온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각종 행사와 대회 개최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체육관 광장을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행사 및 대회 개최 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진입도로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할 신규 진입도로를 별도로 신설해 차량 진입·출입 동선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차량 통행을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보행 동선을 광장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보행 안전성과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는 방침이다.

기존 도로 폐쇄로 확보되는 공간은 하나의 통합 광장으로 확장 조성된다. 이를 통해 행사 추진 시 무대와 관람객 집결지, 체험부스 등을 일체감 있게 배치할 수 있어 행사 완성도와 공간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체육관 행사 및 대회로 주차장 이용 차량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신규 진입도로를 통한 교통 분산 효과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혼잡 최소화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를 넘어 담양종합체육관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환경 조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장성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기’

이주여성·가족 20가구 대상

장성군은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기’를 추진한다.

올해 대상은 입국한 지 2년 이상 지난 결혼이주여성·가족 20가구이다. 머문 기간과 모국 방문이 오래될 순, 부양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18가구를 선정했으며, 남은 2가구는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군은 설 명절 기간 방문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요청을 반영, 해당 사업을 조기에 추진했다. 항공료와 모국체제비를 지원했고, 지난 설 명절에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 방문이 이뤄졌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빛가람꿈자람센터 육아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내부 모습.

사진제공=나주시